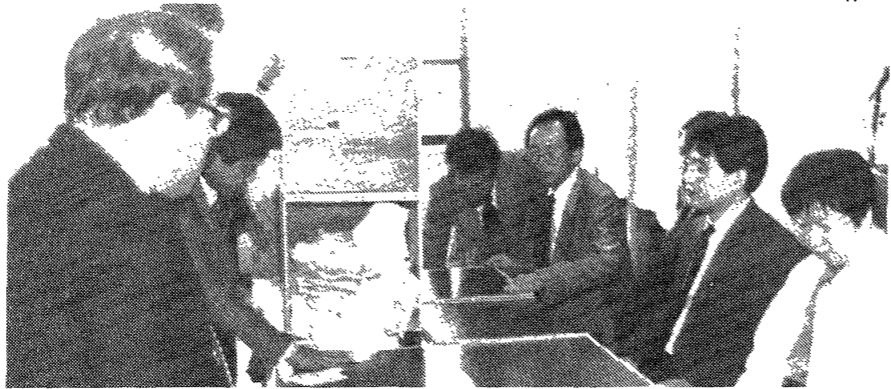


"총학의 그릇된 관점이 실패의 큰 요인"

학자투: 올해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

이번 선거는 총학생회와 민중대행위 그리고 서울-경주캠퍼스간에 제대로 관점을 정립하지 못한채 혼란 속에 거행, 후보2인중 한명의 재단임명만이 남아있다. 이들은 이번 선거의 실패를 발판삼아 장기적인 학자투의 대안을 대적으로 내놓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쓰여졌다. <편집자>



총장후보선거 투표후 개표장면

키를 길게 열어 주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의존성의 심화는 자주성을 침해하고 예측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많은 학우들이 올해의 민중투쟁은 실패했다고 이야기한다. 도대체 어디에서 실패는 기인했을까? 올해의 실패에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으로 얻었

지난 13일, 교수회는 교수총회를 개최하여 송 석구 교수와 민병천 교수를 총장후보자로 선출하여 재단에 후보했다. 한편 선거과정에서 교수회, 직원노조, 경주 총학생회는 '신국주 총장후보자를 지지하고 재단의 간섭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이번 총장선거에 3주체가 단결하여 선거를 사수하자'는 요지의 의사개진을 하였고, 서울 총학생회도 12일 열린 공청회에서 '후보자들의 비도덕성, 어음부정성과 이번 선거판의 혼탁함을 좌시할 수 없으며 당연히 부정선거라는 입장(민중대행위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를 방해하려는 어떤 세력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총학생회)이 나타나는 등 혼란이 거듭되었다.

이번 주장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주의 원칙에 서지 못한 의존성의 문제이다. 실제 이번 선거가 후보자들의 입김속에 진행되고 자신들의 이용성을 신중장사리의 무능성으로 감추고자 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선출된 송석구 교수나 민병천 교수 역시 동대 인맥의 보스이며 과거의 행정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번 자투를 민

상층위주의 형식주의로 대중 소외돼 동국사랑 전제 한 대중운동 바람직

실제의 원인을 분석할 때 민중을 중심으로 한 90년 학자투 전진에서 나타났던 총학의 조직형식주의, 그릇된 정세관, 그릇된 대중관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대중의 역량에 근거하지 않은 제 조직의 건설을 우선시 하는 경향을 조직형식주의라 하는데, 이런 경향은 4월 초 총학 출범 직후에 학교측 9.8% 인상안으로 등록금투쟁을 정리하면서 3차 연석회의, 교

동학로

"신성한 학원내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진정한 동국의 민주화가 다시 멀어진 지금, 대화와 타협은 있을수 없습니다. 진실을 꼭 밝혀 다시는 이런 사태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고 말하는 총대위원회 김경민(경영4)의장.

이번 사태는 지난 10일 열린 총대위원회 임시총회에서 전체 대의원중 투표자 70명 가운데 찬성 58표 반대 9표로 총학총무부장의 해임이 의결되었고 대중은 재간섭을 결의했다.

파괴된 지성

부장 해임의결은 지난 상반기 총학생회 예산감사에서 하계생활, 하계 M-T, 학자투 위원장의 서울출장등의 명목의 4백70만원이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았고 전체 미정산 금액까지 포함하면 8백50여만원의 금액의 지출이 보인

(?)해진대 책임을 묻는것으로 대중 감시위원회 총무책임은 중앙위원회에 상정, 안건으로 채택되면서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된것이고 총무부장해임을 의결해 냈었다. 또한 사무실임구에 부착된 경영학과 학생회와 관광경영학과 학생회 명의의 대자보를 보던 총대위원회가 감사기구로 전락했으며 자기기구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대자보는 학생회 명의로 되어있지만, 과내에서도 의견수렴과정이 학생회장, 혹은 몇몇사람들이 작성한것으로 밝혀졌으며

"무렬자를 방불케하는 학원폭력사태는 마땅히 괴멸되어야 하며 세력화대를 위한 알력싸움을 학내에서 하더니..." 뒤를이어서 한 학생의 말처럼 학원내에서도 폭력이 난무하던 대학이 과연 학문과 사상의 전당이랄수 있는 것인가 <차경국 기자>

정체불명의 동국중흥백서초록

이런 교수직선 선거가 시대적 대세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졌다는 대다수 교수의 공감에도 불구하고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배아픈 교훈을 한가지는 바로 현 동국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아픔이었다고 평가된다. 지난 9월 20일경 본교에서 발간된 정체불명의 '동국 중흥 백서초록'이 그것인데 이 글은 초록에 대해 간단한 비판을 하고자 쓴 글이다. <편집자>

무책임한 무기명투서 지양돼야 총장후보에 대한 검증 필요

이 백서에 거명된 사람은 이번 총장선거 후보외에도 선거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조차 거명함으로써 이 백서의 작성자가 누구였는지에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던지 이르러왔다는 전말이다. "거명된 삼보의 이념구원과 정체를 바탕으로 설립된 우리 동국대학은 어떤 설립 헌장을 세우려 하고 있다"로 시작되는 이번 백서에는 백성욱 총장이며 오늘에 이르러까지 인맥·파벌에 관한 폭로성 기사를 주로 하고 있다. 이선근-정세관-황수영으로 이어지는 백성욱 정세관부터 내려오는 인맥·파벌은 작금의 총장선거에 이르러까지 계보를 형성하고 그 주축의 여러 교수들(조××, 김××, 임×× 교수 등)이 민주임을 가정한 체 기회주의적으로 기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백서가 거명된 무기명투서만 보더라도 총장선거에 유보되었다는 것은 학자투 정



박성식 (민중대행위장)

대중에 기반한 사업중요성 재인식 인맥·파벌 늪에서 못 벗어난 선거

학생들과의 공감대형성이 미약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자투를 너무 편협하게 바라봄으로 총장선거의견에만 머물러 있어 있었고 대외역시 좀더 대중적인 홍보와 논의를 이뤄내지 못한것이 문제라 하겠습니다. <이적까지 재단에서는 이렇다할 입장표명의 움직임이 없는데 이후 상황을 예측한다면 > =재단에서야 당연히 재단의 이익에 부합되는 인물이 낙점하겠죠. 그러나 빠른 시일내에 낙점을 피하고 내년 4월의 졸업식업무까지 원 총장사리에 맡겨두고 방종 학생들의 결집력이 약화됨을 타서 총장을 임명하지 않음에 예상합니다. <이번선거서 총학생회와 대외부의 오류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 =우선 총학생회는 '운영위'하나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고 모든 사람들이 항상 논의주에서 머물렀으며 그로 인해 학생회 간부들과 일반

우리의 現代 세계의 現代

●자동차산업 ●해운업 ●항공산업 ●중공업 ●전자산업 ●건설업

世界의 自由와 平和, 繁榮 — 現代와 더불어 未來가 있습니다.

일사의 중동에 이룩한 大役事를 비롯, 방하의 남극에 건설한 世宗 과학연구기지, 미 태평양 연안에 설치한 세계 최대의 원유수출용 해양구조물 엑스 자켓, 문송기 악천후 속에서도 설치하는 인도양 심해의 천연가스 채굴용 해상 플랫폼 등의 大役事를 이룩한 現代는 이제 시베리아 극한지대에서 한국이 필요한 모든 자원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現代는 불굴의 의지와 강인한 개척정신으로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끊임없는 대장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現代와 더불어 未來가 있습니다.

凍土의 시베리아

現代

동악의 문예일꾼에게 드리는 제언<上>

“문예일꾼의 손에는 문학·예술의 무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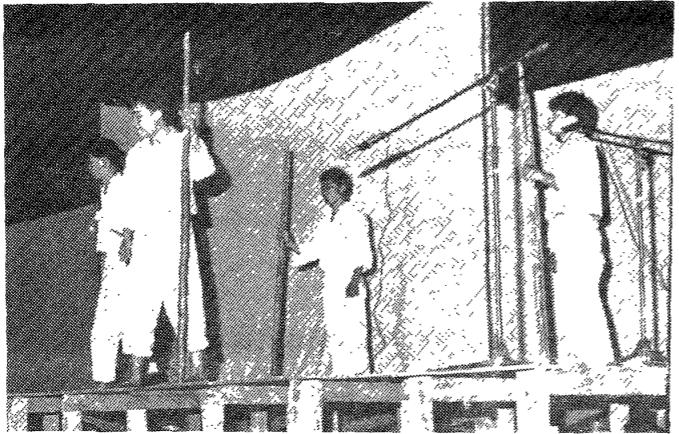
‘정치-문예’따로보는 이분법적 사고방식 버려야

태백산맥서 ‘창작은 사상의식 발전에 기여’함을 확인

동악의 문예운동이 지금껏 정치투쟁조직의 대중동원수단에 불과했던 점을 비판하며 좀더 올바른 문예운동을 모색하고자 이 글을 2회에 걸쳐 게재하고자 한다. (편집자)

1. 올바른 문예실천을 고민하는 동지들에게

먼저 동지들에게 최근 몇년간 동악문예운동의 변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학생운동에 대중노선이 제기되면서 87년 이후 대중의 광범위한 진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몇몇 선진적 활동가들의 외로운 투쟁에 의해 그 명맥을 유지하던 시기를 마감하고, 대중중심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여러 방면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동악엔 현재 문학, 미술, 노래, 민속극, 만화, 영화, 연극, 사진, 풍물등의 여러 문예가 있습니다. '89년경부터 단과대, 과학생물 산하 문예인들이 건설되면서 놀라운만큼 양적 성장을 하였습니다. '89년 이후부터 각종 집회나 모임에서 동악문예인들의 노력의 결실은 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선동과 유인물 이 할 수 없는 것을 노래와 풍물, 길게그림과 시가 했음을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2. 동악의 문예실천과 그 극복방향에 대하여

이제 동지는 이러한 비판이 지나친 문학에 대한 편향의 발상이 아니라 오히려 의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활동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으로 긍정하기 때문입니다. 문예일꾼이 다른 일꾼도 아니고 문예일꾼인 까닭은, 변혁운동의 수레바퀴를 제대로 끌기 위해 그저 문예일꾼이 꼭 필요한 까닭은 너무도 당연하게 문예일꾼이 문예를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문예일꾼은 문예를 잘하기 위해서라든가 전제 하에서 모든 것이 유의미합니다. 문예일꾼이 문예를 잘하는 것보다 더 크게 민족과 민중을 위하여는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동악의 문예일꾼 가운데에는 문예학과 창작에 너무 열중하는 것이 사상의식의 발전에 실패한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를 말씀해 주어야 하는 사례를 우리의 문예 선배들에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동지들도 잘 알고 있는 조경태 선배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조선배님은 원래 진보적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태백산맥”을 구상하고 준비하면서 해방전쟁의 역사를 깊게 연구하게 되었고 “태백산맥”이란 대작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조선배님의 의식은 놀라운 변모를 거듭하게 됩니다. 물론 과학적 사상의 무장까지라는 다나르지 못했지만 김범우, 열산선배에 대한 작가의 평가가 전편의 회색적 테두리로부터 후편의 일정한 당파적 테두리로 바뀌는 것은 창작자 사상의 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증하는 한 증거입니다.

또한 이 학자는 “태백산맥”에서 형성된 해방전쟁의 역사에 대한 사실이 이제껏 역사학자들이 그것에 대해 연구한 성과가 많았지만 김범우, 열산선배를 잘 아는 것은 해방전쟁의 역사에 대해 다른 역사학을 읽는 것 외적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당시를 살다간 민중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을 통해 역사를 이해하게 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은 장구한 듯하게 설명한 이런 문예는 사상에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동악 문예의 활동에서 낡은 사상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은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합니다. 동지들은 자신의 내부와 외부에 걸쳐있는 낡은 사상과 싸우는 데 한치의 물러섬도 없어야 하겠습니까. 낡은 사상의 싸움은 단지 파괴의 과정이 아니라 올바른 사상, 즉 올바른 문예운동판을 정립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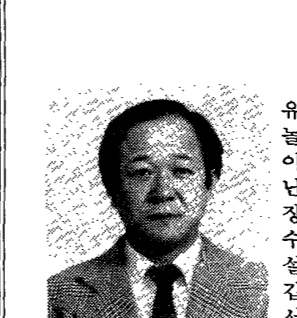
조동천 (문과대·국문과) 노찾사 정공연 건강한 삶의 노래를 추구하는 노래모임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오는 10월20일(토, 7시), 21일(일, 3시, 7시), 22일(월, 3시, 7시) 대학로 체육관에서 일곱번째 정기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은 일하며 사는 사람들의 진정한 정서, 수난의 역사속에서도 꽃처럼 민중의 삶과 참세상에 대한 열망, 함께 사는 공동체의 참인간됨을 표출하는 다양한 형식의 노래공연이 될 것이다.

문화담론

서민련 ‘통일강좌’개설 서민련은 통일연주회로 ‘민중학교’를 통일강좌가 오는 24일부터 12월4일까지 매주 화·금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10시까지 개설된다. 양국정권에 걸쳐 14년의 강좌로 진행된 이번 ‘통일강좌’에는 백기환, 송진호, 이영희 등이 참여하게 된다. 연락은 739-0751

문턱 없는 대학행정

김용旭 (논과대교수·작물생리)



서독 본대학 유학시절에 나를 놀라게 했던 일이 다시금 기억난다. 사탕알 모양의 기념식에서 수상한 짧은 연설이 끝났을때 갑자기 군중속에 서 몇몇 젊은이들이 수상에게 백수를 사들이고 큰 소리로 외쳤다. 아마도 한국같은 제벌의 경향이 와서 이 젊은이들을 잡아간다거나 아니면 무슨 조치를 당연히 취했을 텐데 옆에 서있던 경찰은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태연히 보고만 있었다. 그런데 수상은 단상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와서 호주머니를 군중들에게 돌려보내면서 사탕은 백수를 사주고 싶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못 사주시니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답례를 하였다. 나의 상상속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었고 파장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나를 너무나 놀라게 한 일이었다. 한국처럼 높은 분들이 있는 곳은 항상 문턱이 높아서 이러한 아름다운 장면을 상상조차 할수 없을 것이다.

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광경을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통일독일의 바탕이 되었으며 믿는다. 요사이, 우리 대학사회는 어느 한구석도 희망적이고 발전적이라고 보지는 못하지만 행보만 답답하고 있어, 모든 학교일에 “잘 해 보자, 내게는 관심없는 일이야”라는 무관심의 풍토만 깊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학의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가지 외적인 때문도 있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학교당국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간에 깊은 불신과 반목이 깔려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총장이 교수들의 연구실에 들어서 이해와 부락을 호소하기도 하고 교수들의 의견을 사심없이 들어 보려고 했다던 지금과 같은 무관심의 풍토가 깊어지지 않고 불신과 반목이 깊어질수록 학교의 퇴보가 가속화될 것이다. 나는 아이에게 것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울지 않는 아이는 울기를 조차도 없기 때문에 울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학교당국은 깊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학교당국이 공정하게 대학을 운영하고, 교수들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한국처럼 높은 분들이 있는 곳의 항상 문턱이 높아서 이러한 아름다운 장면을 상상조차 할수 없을 것이다.

문턱없는 대학행정, 그것은 대학발전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 발전을 위해 사심없이 학교당국에 건의도 하며,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도 알고, 때로는 관용으로 이해 할 줄 아는 학생들의 자제도 진정 필요한 것이다. 독연성이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박사학위를 받는 총장이 존재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 학생들에게 보낼 줄 아는 교수와 학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생활속의 민족의학

金甲成 (함의과대교수·동국한방병원 침구과장)

가을에 보약을 먹는 이유는... (相如), 이러한 기운은 인체에서도 생명활동에 특같이 적용되어 계절의 순성에 따라 생·長·化·收·藏의 생리, 성장, 조화 수렴, 저장의 5단계 법칙에 의거, 가을 역시 인체에서는 수렴하고 소유하려는 본능적 욕구에 의거 보약을 복용함으로써 분산되거나 소모됨이 없이 투사된 만큼 이상의 투자수수 효과를 노리고자 함이 가을에 굳이 보약을 먹어야 하는 논리의 귀결일 것이다.

가을에 보약을 먹는 이유는... (相如), 이러한 기운은 인체에서도 생명활동에 특같이 적용되어 계절의 순성에 따라 생·長·化·收·藏의 생리, 성장, 조화 수렴, 저장의 5단계 법칙에 의거, 가을 역시 인체에서는 수렴하고 소유하려는 본능적 욕구에 의거 보약을 복용함으로써 분산되거나 소모됨이 없이 투사된 만큼 이상의 투자수수 효과를 노리고자 함이 가을에 굳이 보약을 먹어야 하는 논리의 귀결일 것이다.

가을에 보약을 먹는 이유는... (相如), 이러한 기운은 인체에서도 생명활동에 특같이 적용되어 계절의 순성에 따라 생·長·化·收·藏의 생리, 성장, 조화 수렴, 저장의 5단계 법칙에 의거, 가을 역시 인체에서는 수렴하고 소유하려는 본능적 욕구에 의거 보약을 복용함으로써 분산되거나 소모됨이 없이 투사된 만큼 이상의 투자수수 효과를 노리고자 함이 가을에 굳이 보약을 먹어야 하는 논리의 귀결일 것이다.

가을에 보약을 먹는 이유는... (相如), 이러한 기운은 인체에서도 생명활동에 특같이 적용되어 계절의 순성에 따라 생·長·化·收·藏의 생리, 성장, 조화 수렴, 저장의 5단계 법칙에 의거, 가을 역시 인체에서는 수렴하고 소유하려는 본능적 욕구에 의거 보약을 복용함으로써 분산되거나 소모됨이 없이 투사된 만큼 이상의 투자수수 효과를 노리고자 함이 가을에 굳이 보약을 먹어야 하는 논리의 귀결일 것이다.

가을에 보약을 먹는 이유는... (相如), 이러한 기운은 인체에서도 생명활동에 특같이 적용되어 계절의 순성에 따라 생·長·化·收·藏의 생리, 성장, 조화 수렴, 저장의 5단계 법칙에 의거, 가을 역시 인체에서는 수렴하고 소유하려는 본능적 욕구에 의거 보약을 복용함으로써 분산되거나 소모됨이 없이 투사된 만큼 이상의 투자수수 효과를 노리고자 함이 가을에 굳이 보약을 먹어야 하는 논리의 귀결일 것이다.

학생투고

문예방면 역시 커다란 변화의 조정이 내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전기를 체험한 '85, '86학번들은 종종 이렇듯 회상을 합니다. '문예를 할 것인가, 운동을 할 것인가. 문학활동을 열심히 보거나 시를 쓰거나 선배에게 들으면 어김없이 불려가 무지함을 받고 혁명적 학습과 혁명적 실천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굳게 약속하고, 혹 풍물이나 탈춤씨를 에든 경우에도 인제나 정치적 관심, 정치적 실천이 앞설지 않더라도 문예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운동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대중의 광범위한 진출이 없었다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90년대를 저주의 시대, 승리의 시대라고 즐겨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동악은 깊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단연하건대 문예일꾼이 새물결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동악의 위기는 결코 극복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우리가 선 자리, 동악의 문예운동에서 새 기운을 솟게 하기 위해 그동안의 문제점과 그 극복대안을 사상, 조직, 대중운동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ELS 종로 집중영어회화 코스. 'ELS종로'는 강력한 대학입학 지원자를 위한 집중영어 코스로 ELS종로의 마스터제로 미국 ELS프로그램과 동일한 내용과 시간대의 강의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강 10월 22일 등록접수중. ELS Chongno (278)2902-5

Si-sa ECC. 종로2가에 (주)시사영어사가 직영하는 영어회화전문학원. 개강 10월 22일 등록접수중. 교수진 전원 미국인 Native Speakers. 전강의실 첨단 Video/Audio 교육용설비. Si-sa ECC (277)6812~4

눈을 감으면 바깥보다 눈부시다. 눈빛 생명력 가득 담긴 유해국의 시. 3월 30일 개강. 2,300원. 진선출판사 720-5990-1

최신 사회과학 학술정보가 풍부하게 마련되어 있는 곳. 사직동, '한국사회과학도서관'입니다. 한국사회과학도서관 THE KOREA SOCIAL SCIENCE RESEARCH LIBRARY. 304-2 전화 738-5015, 739-9288

한국사회과학도서관 THE KOREA SOCIAL SCIENCE RESEARCH LIBRARY. 304-2 전화 738-5015, 739-9288. 도서관 정보, 위치, 개관시간, 연구실 이용안내, 정보 서비스 설명, 서비스 내역, 도서관 정보, 위치, 개관시간, 연구실 이용안내, 정보 서비스 설명, 서비스 내역.

서울 무관심속 조용히 진행 경주 자치권보장... 공약남발

‘실현가능 공약’ 아쉬움 남겨

서울캠퍼스 홍보회

서울캠퍼스 ‘총장후보선출을 위한 홍보회’가 지난 12일 오후 2시 교수·학생·직원 2백여 명이 참석한, 지난해 보다 훨씬 저조한 호응속에 중앙강에서 열렸다.

지난 11일 경주캠퍼스에 이어 열린 이날 홍보회는 6명 후보의 의견발표와 교수회·직원노조·학생회의 질의, 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선거관리위원장 李麗雨(경찰·행정학)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소견발표회에서 먼저 李麗雨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뽑힌 후보가 반드시 총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말하며 이번 선거에 대한 교수회와 동국 각 주체의 기대를 단적으로 나타냈다.

이날 밤자를 소견발표에 나선 宋錫球(철학)후보는 “개혁의지를 갖고 뛰어나는 총장이 되겠다”며 학사행정공개 등의 공약을 내세웠고 閔丙甲(정치·외교학)후보는 “소속적 행동에서 탈피한 대승적 행동을 주장하고 제3캠퍼스 건립을 포함한 종합계획수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세번째 발표자로 나선 張源宗(경제학)후보는 “경영체로서의 대학에 대한 경영진단이 시급하다”며 교과과정 개편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공약했고, 다음의 李載昌(불교학)후보는 “동국구성원의 총화단결이 요구된다”며 화합·협동하는 풍토

조성등을 공약했다. 이어 曹永福(사학)후보는 “훈돈과 위기를 극복하고 민족대학의 자부심과 긍지를 회복”을 주장하고 소신있는 행정으로 교육·인사·재정 문제해결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마지막으로 소견발표에 나선 曺錫振(교육학)후보는 “대학의 지적·학문적 분위기를 쇄신”을 역설하며 교육중심운영체제 설립등을 공약하는등 모든 후보가 재정확보를 공약했다.

이날 각 주체의 질의순에서 교수회대표 鄭用吉(정치·교육학)교수와 辛孝善(식품공학)교수는 사립학교법과 관련 제정도의 마찰에 따른 해결책, 동국총체제인원과 극복방안, 이공계열 발전방향등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나 각 후보는 질문의 정확할 답변을 회피하며 모호한 대답으로 회의 참석자들을 실망시켰다.

이날 직원노조 장운부위원장과 김강수 기획부장이 선거결과와 만일 재단이 2위자인 자신을 낙선할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묻자 李후보, 宋후보, 曺후보는 원칙적으로 거부하거나 재단과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 받아들이자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일부 학생측에서는 이유 후 보를 비난했다.

다음 학생회는 민중대학위원장 박성익(사학·3)군이 李麗雨위원장에 후보자의 생활권, 전공 등 자격검사 수준을 묻자 “교수봉급과 관련된 문제는 없을 것이다”고 대답해 일부 학생의

아이를 샀다. 이어 총학생회장 권오현(화학4)군은 질의대선에 “동국의 현상향을 우리 모두 반성하자”며 “이번 총장선거가 동국발전의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홍보회는 작년과 달리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는데 끝날즈음에 학생은 겨우 50여명의 참석자만 남아 이번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한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경주캠퍼스 홍보회

총장후보 홍보회가 선관위원장 李麗雨(경찰행정학)교수 및 각후보들 비롯한 교수·직원·학생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일, 오후 2시 원효로 소강당(1)에서 열렸다.

선관위원장 李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홍보회는 직원노조, 총학생회의 질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후보들은 주로 학교 운영을 민주적으로 이루기 위해 교수들의 참여를 넓히는 한편, 경주캠퍼스의 자율성 및 교육환경 신장을 통해 양캠퍼스의 균형발전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소견발표에 나선 6명의 후보들은 학교발전을 위한 제원확보를 통해 부속 양·한방 병원의 증축 및 조리기구에 노력하는 한편, 경주캠퍼스 부속장의 2차전환을 확대, 강화할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이날 각 주체별 질의와 응답에서 교수회 대표가 “경주자율



성 신장의 구제처 방도와 '한 의대 의대 장기발전방안'에 대한 계획을 묻자 자율성 신장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宋·閔·李·曺교수가 '부속장 권한을 강화하거나 대폭이 양 하겠다'고 했으며 曺교수는 "모든것이 상식적이므로 수용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이 된다면 강화된 재단기능을 이양받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6명의 교수는 총장중심의 학교운영을 위해서라도 대폭 이양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질의에 나선 학생대표들은 '대학본관', '기초과학관', '한방병원중심' 등의 시설확충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및 부지확장 계획에 대해 질문했으며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이 투표권자인 교수들을 위한 것이 태반이어서 아쉬움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후보자들의 답변이 대동소이했으며 너무 많은 공약들을 남발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공인회계사 6명 합격

본교생 예년과 비슷한 비율

본교 이화선(경영3)군과 임성호(경영87학)등 6명이 제2회 공인회계사(CPA) 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7월에 실시된 2차시험에서 본교 1차합격자 12명중 이군과 등 5명이 합격해 전국 3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한편, 합격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화선(경영·3) △김홍수(회계주) △한성덕(일반대학원) △임성호(경영87학) △양성희(경영90학) △유준원(경영86학)

졸가 D후보-다 좋은데 너무 뜻밖하게 좋아야. 그러나 누가 뭐래도 나는 후보중에는 제일 나야...
축 위서 x줬다는 분원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 이번 민주 직(?)인 교수 직선 선거 결과를 보며 본 회전무대주 "지성과 학문의 정당한

총장 선거 뚜껑 열어 보니 '닭 쫓던 개 지붕쳐다 보는 격'

진력은 대단할지 모르지만 장사꾼 같아 총장직은 못해. B후보-총장감으로는 제격이지만 불교적인 경조(慶弔)에 가보질 않아 아까워할걸. C후보-대교총 인물이야. 조계사에서 과연 받아

서울·경주 동연제 24일부터 개최 동아리인 연대의 장 마련

서울캠퍼스 제6회 동연제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3천 동아리의 힘을 모아 개최된다.

이날 동연제는 동아리인의 연대와 발전을 위한 "우리를 위한 단결을 위하여"란 제목으로 진행된다.

학술분과인 '사우회'에서는 25일 오후 4시 중앙강에서 '제10회 역사인물법정'으로 박헌영세를 올림, 자제토론을 거친 김사의 논고와 변호사의 변론을 통하여 재판장이 민중적 관점으로 판결한다.

고추 판매 사업 마무리

총4만근 판매...농화연대 마련

농과대 '고추판매사업'이 지난 27일, '농민·학생 한마당'을 끝으로 제원군일대의 3천5천근의 고추를 해피관앞(고추장터)에서 판매했다.

지난달 14일, 김기정(제원농민사부부)씨와 농과대학총장 장 홍양기(농업경제3)군과 학생 30여명이 참가한 고추에서는 흥건에 대한 감사와 우루과 이라온드 철매를 기원했다.

이날 판매사업은 농과대 과별로 이틀씩 판매와 배달에 힘썼고, 우루과이라온드가 우리 농민에게 기원 영랑과 국내 산업에도 미칠 영향등을 선전하는 작업을 같이 했다.

도서관 모범 이용자

홍춘기군등 3명에게 시상

본교 중앙도서관(관장=金東俊)은 도서관을 사랑하고 모범적으로 이용하는 학생을 지난 11일 도서관장실에서 가졌다.

이날 수상자는 모범이용상에 홍춘기(경영·4) △김정원(법학·3)군과, 모범봉사상에 △강윤희(야간경영·3)양등 총 3명으로 도서관 부상으로 받았다.

이중 홍춘은 제회(한국산업은행 창립기념 대학(원)생 논문상)에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시기 선조들의 삶과 인생관을 조명하는 연극을 공연한다.

'아마추어 부선연구회'에서는 24일부터 26일까지 다량관 앞에서 HAM 운영현황을 일반학우들에게 보여준다.

'새바람'에서는 24일부터 26일까지 풍대 올라가는 길목에서 자본주의 사회속에서 나타나는 일관적인 여성억압·착취의 제현상을 만화로 표현해 내고 결론부분은 대자보와 한다.

예술·창작분과인 '뚝실'에서는 24일부터 26일까지 학생회관 앞에서 생활미술운동의 일환으로서 소형길게그림이나 달력·부적·편지지 등을 직접 제작·판매한다.

경주캠퍼스 '제5회 동아리 대동놀이'가 동아리연합회(회장=이국종-KUSA) 주최로 오는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4일간 교내일원에서 열린다.

파괴의 고질적 동연제에서 탈피, 민족·민중문화의 보급과 각 동아리의 교민·분산·폐쇄적 성향을 극복하고 하나된 동아리인으로 봉착하는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의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는 29일(전야제)는 시민학생노래부르기(오후 5시~7시, 원효관 중정), 노년영화상영(소낙비, 오후 7시~10시, 원효관 중정), 오는 30일=개막식(오후 1시, 녹야관), 김남주시인 초청강연(주제:풍인조국을 향한 이시대 청년학도의 임무, 오후 2시, 녹야관), 오는 31일=황병도씨 초청공연(마당극 '광대실남', 낮12시30분~오후 2시, 녹야관), 오는 11월1일=폐막식경 동국가족 관전식(오후 1시, 대운동장) 등이다.

지교과 기념축전

창립21주년 맞아

'지리교육과 창립 21주년 기념축전'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사전전, 교직원 발표회, 지교인의 밤등의 행사로 열렸다.

지난 10일 오후 1시 학생회관 앞에서 노래패공연으로 막을 연 이번 축전은 지난 11일 오후 4시 각학년별 담사보고가 학림관(소강당)에서 있었고, 지난 12일 오후 4시에는 정인호(지교과 71학번) 동문의 교직수기 발표가 학림관 제2층에서 있었다. 또 지난 13일 오후 5시에는 교수·학생·동문등 1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교인의 밤'이 다량관 2층에서 있었다.

'공대신문'발간 예정

'공대신문'발간 예정

'공대신문'이 공대원정부(부장=엄정신·전신3)를 중심으로 이달 내내부터 격주로 간행될 예정이다.

대총, 2학기 학생회비 분배 예산분배소위 구성, 총 3천8백만원 지급

총대의원회는 감사지연, 예산배분적마련등의 이유로 예년보다 늦게 지난 10일 '예산분배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학기 학생회비를 분배했다.

예산분배소위는 중앙기구, 단대연합대표 6인으로 구성된 중앙기구에 38%, 단대연합에 62%를 원칙으로 중앙기구는 기구별 총액 20%, 동연 8%, 대총 5%, 여총 5%와 단과대는 기본액 1백40만원에 단과대학생수 1인당 9백20원씩 정산하여 가산했다.

또 전체총액에 4천7만원의 선관위비용 1백57만원을 제외한 3천8백50만원을 1백%로 잡고 분배했다.

이부대는 이번 학기에 한해 특별지원하고 다음 학기부터는 단대로 배분하게 된다.

1학년 교양필수 독후감 잠정 폐지

교무처-중앙교과위 합의로 이번 학기부터

지난 1학기까지 1학년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교양필수독후감'이 지난 20일 교무처와 중앙교과위원회의 합의로 이번 학기부터 잠정 폐지되었다.

이번에 폐지된 독후감제출은 그동안 학교측의 구태의연한

만일 △대=1백98만5천원 △법대=1백63만원 △사회대=1백87만원 △경상대=2백28만5천원 △농과대=1백82만원 △공대=2백59만원 △사법대=2백32만6천원 △예대=1백71만원 △이부대=3백57만4천원.

생활에 풍요를, 마음에 풍요를

연변에서 온 교과서

일마전 두산그룹 교사학회의학술시찰단의 일환으로 중국 연변에서 다녀 온 서울대정중학교 오금자 선생님이 그곳의 동포선생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우연히 '조선어문' 교과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육과정들이 우리말, 우리 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반가움을 느끼면서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래서는 안되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데군데 맞춤법의 차이가 있고 생소한 단어들이나 자주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한국에 돌아가면 우리의 교과서를 보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오는 길에 '조선어문' 교과서 몇 권을 갖고 왔습니다. 자유왕래의 길이 열리고 있는 아제는 조금씩 벗어난 우리말 우리 글도 다시 하나도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함으로 반갑고도 예뻐한 마음이지요.

우리나라 선생님과 중국 연변의 동포 선생님이 교과서를 교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45년이 우리 모두에게 단결과 그리움의 세월이었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어서는 안되었습니다. 짧지 않았던 그 세월동안 조금이라도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하루 빨리 다시 하나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두산그룹

THE DOOSAN GROUP

연변에서 온 교과서

조선어문



●두산그룹은 중국 소년 및 동구권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교과서 무임급 사정을 비롯한 각종 사적용 매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공산권 해외·배우·기혼등에 함께 하신 분은 두산그룹 연경학술재단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주소 : 서울구 동로가 13번지 연경학술재단 (444번로 110-121) ■ 전화번호 : 763-8151

생활에 풍요를, 마음에 풍요를

연변에서 온 교과서

●두산그룹은 중국 소년 및 동구권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교과서 무임급 사정을 비롯한 각종 사적용 매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공산권 해외·배우·기혼등에 함께 하신 분은 두산그룹 연경학술재단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주소 : 서울구 동로가 13번지 연경학술재단 (444번로 110-121) ■ 전화번호 : 763-8151

현장 스케치

“정당한 활동... 재판정에서 밝힐터”

반미구국전선회오리 서울구치소를 찾아

지난 12일 오전, 웬일인지 다른 날보다 날씨가 무척 좋다는 생각을 하며 서울구치소행 차에 몸을 싣고 있었다.

막상 구치소에 도착하니 취재를 해야한다는 의무감이 긴장이 되기 시작했다.

반미구국전선회.
지난 7월 메스컴을 오르내리며 북한의 대남전력회조직원이라는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8명의 동업의 하우가 우리들을 떠나지 3개월, 이 짧은 시간동안 이들을 어떻게 버티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반성하며, 김봉준(야간강좌·무역4년)군을 만나러 구치소로 들어갔다.

“어느때와 다름없이 아침에 면회를 왔는데, 아무 이유없이 면회를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구치소보호기도 뭔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아픈데 구치소측에 항의하기위해 한·두명씩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폭력사태가 있었다는 것이 알려져 그자리에서 언쟁하고 싸우고 그랬죠” 마칠 아들을 면회하러 나왔다가 기자와 만난 김봉준군의 어머니는 8·27서울구치소폭력사태를 알게된 경위를 들려주었다. “나중에 면회해서 얼굴을 보니까 ‘망이’ 들어서 통통 부어있는 거예요. 그걸 보

이는데는 별로 어렵지 않았다. 고향은 경상남도 창원이지만 구속된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서울과 창원을 오가며 1주일 동안 4일을 면회하러 온다는 어머니에게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자 “아무리 힘들어도 구치소안에 있는것보다 편하지않겠느냐”며 “중년이 말처럼 나쁜 범죄를 저지르다가 구속된것도 아니고 나라통일을 위해 일을 하다 잡혔다니까 그거 하나 믿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려고 해요, 예미가 자식중

주 찾아와주면 좋겠습니다”라며 예전의 그 시인스런 웃음을 지어 보이며 구치소안에서 자기 혼자자이니 수의안에 줄부너서쓰를 입고 있어 감방에서도 제비라는 별명이 따라다니는다고 ‘죄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여유’를 보여주시기도 했다.

“남편이행과 저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올것입니다. 저희 두명은 다른 친구들보다 더 나쁜애들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실형을 살게될 것 같

는 생각을 잠시 하시는이 면회중료를 알리는 사이렌소리와 함께 기자와 어머니는 그곳을 나와야 했다. 순간 플라스틱 보호막이 다시 구치소의 감방으로 돌아가려던 백중민군은 무엇인가를 잊었다는듯

아무리 힘들어도 구치소 안에 있는 것 보다는 편하지 않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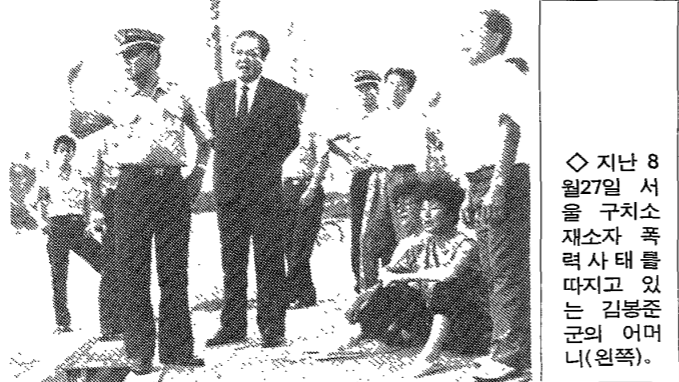
몸을 돌려 문을 나서고 있는 우리를 향해 힘껏 소리질렀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던 우리의 동지들이 수감된지 벌써 3달째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그들의 힘이 배주려고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것 같다.

만인의 자유를 위해 구속·수감을 무릅쓴 그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백중민군의 표현처럼 ‘사랑’이기 때문이다.

(유기용 기자)



◇ 지난 8월 27일 서울 구치소 폭력사태를 다지고 있는 김봉준군의 어머니(왼쪽).

면이주질 않으며 누가 믿어졌어요”라며 조용히 웃는다.

이유고 면회시간이 네 김봉준군의 어머니와 기자는 면회실로 들어갈수 있었다.

“밤에 잠자는 않나? 이불하나 넣어야겠지?”라며 이들의 건강부터 염려하는 어머니의 물음속에는 시간이 흐름을 애석해하는 애뜻함이 묻어나고 있었다.

“요즘은 17일에 있을 1심재판에 대한 생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구속된 학우들중 제가 제일 먼저 재판을 받게되니 준비할것도 많이 있어요. 이번 재판에서는 무엇보다 저희들의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밝힌 예정입니다”라며 근래의 생활에 대해 담담하게 얘기해준다.

가장 보고싶은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당연히 동업의 1번 학우들이지만, 독방에 혼자 앉아있을때 자주 학우들의 얼굴이 떠오르는데요. 그런데마다 가끔씩 변화해주는 친구들이 되곤 합니다. 자

아요”라며 나름대로 재판결과를 예측한 후 “일만면의 선고를 받는다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판정에서 우리의 주장을 어떻게 알리느냐가 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라며 재판에 임하는 결심을 보여주었다.

김봉준군의 짧은 만남을 마치고 나온 기자는 곧바로 백중민군의 면회를 하러는 어머니와 함께 백군을 만나 볼수 있었다.

“어머니, 면회오는 것 힘들지 않으세요? 몸도 별로 좋지 않으실텐데...”

“나는 괜찮는데 아침마다 내가 추울것 같아 그게 걱정이에요”

서로의 안부부터 물어보는 이들의 사이에 구치소의 벽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

“창원에서 올라올때, 버스차장님 머 구치소의 전경이 보이네마다 자신의 생각이 가슴이 미어지듯 작았다는 어머니의 얼굴, 걱정스러워하는 그 얼굴에서 새로운 세상의 희망을 볼수있는 날은 언제일까라

않는다. 혹자는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할지도 모른다. 몇 주전 교수회관 화강실에 서 발견된 ‘동국백서조각’을 보면 두분중 한 분은 부능 또다른 한 분은 어용이라는 낙인이 찍혀있다. 물론 백서조각을 예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불순한 의도가 있는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내용자체는 상당부분 사실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 학생회 이야기도 좀 해야 하겠다. 아무리 민주집중제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면 무엇이냐. 지도자 혹은 간부들이 성원들의 이해와 요구, 실정과 처지를 살펴보고 즉 성원의 자주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운영을 할 경우 ‘민주집중제’는 한낱 허울좋은 ‘미시여구’에 불과하다. ‘조사없이 발언권없다’

지난 8월 폭력사태가 일어졌을때 얼마나 가슴아프던지 그 자리에서 언쟁하고 싸웠죠

고 얼마나 가슴이 쓰리고 아프던지, 제멋대로 잡아두고, 사람을 깨닫듯 두들겨대고... 아픈데 한 번 더 더 그런일이 있으면 내가 가만 안바들거여”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어머니의 모습속에서 자식을 대한 사랑의 위대함이 보이는데 됐다.

또한 바로 옆에 계신 분 이 반미 구국전선에 연부돼 수감중인 백중민(국문과·4년)군의 어머니입니다

배우기

크기가 크면 작던 작던 간에 어떤 조적을 이끌어 가는 올바른 지도자의 상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한다. 혼자 ‘잘나가는’ 지도자 보다는 성원들의 실정과 처지를 살피고 이해와 요구를 수렴해서 조적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라고 ‘조사없이 발언권 없더라’는 모택동의 경구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책상에 앉아서 공문이나 내려 보내고 어떠한 공간이 발생하면 이를 저러한 공리공분을 벌이면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고 비판을 한다거나 법칙을 펴기도 하는 ‘잘나가는’ 지도자들이 사회 곳곳에 대학배에 버젓이 행세하는 세태를 생각하면 더더욱 말이다. ▲ 이 말에 수증

을 한다면 이런 광경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총장실에 앉아서 공문이나 내려보내고 도장이 나 찍는 총장이 아니라, 학생회실, 직원사무실, 교수연구실에 선거때만 아니라, 간혹가다 1년에 한 두번 만이라도 찾아와 실정과 처지를 살피고 지지적인 이해와

을 한다면 이런 광경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총장실에 앉아서 공문이나 내려보내고 도장이 나 찍는 총장이 아니라, 학생회실, 직원사무실, 교수연구실에 선거때만 아니라, 간혹가다 1년에 한 두번 만이라도 찾아와 실정과 처지를 살피고 지지적인 이해와

을 한다면 이런 광경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총장실에 앉아서 공문이나 내려보내고 도장이 나 찍는 총장이 아니라, 학생회실, 직원사무실, 교수연구실에 선거때만 아니라, 간혹가다 1년에 한 두번 만이라도 찾아와 실정과 처지를 살피고 지지적인 이해와

을 한다면 이런 광경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총장실에 앉아서 공문이나 내려보내고 도장이 나 찍는 총장이 아니라, 학생회실, 직원사무실, 교수연구실에 선거때만 아니라, 간혹가다 1년에 한 두번 만이라도 찾아와 실정과 처지를 살피고 지지적인 이해와

을 한다면 이런 광경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총장실에 앉아서 공문이나 내려보내고 도장이 나 찍는 총장이 아니라, 학생회실, 직원사무실, 교수연구실에 선거때만 아니라, 간혹가다 1년에 한 두번 만이라도 찾아와 실정과 처지를 살피고 지지적인 이해와

을 한다면 이런 광경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총장실에 앉아서 공문이나 내려보내고 도장이 나 찍는 총장이 아니라, 학생회실, 직원사무실, 교수연구실에 선거때만 아니라, 간혹가다 1년에 한 두번 만이라도 찾아와 실정과 처지를 살피고 지지적인 이해와

을 한다면 이런 광경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총장실에 앉아서 공문이나 내려보내고 도장이 나 찍는 총장이 아니라, 학생회실, 직원사무실, 교수연구실에 선거때만 아니라, 간혹가다 1년에 한 두번 만이라도 찾아와 실정과 처지를 살피고 지지적인 이해와

을 한다면 이런 광경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총장실에 앉아서 공문이나 내려보내고 도장이 나 찍는 총장이 아니라, 학생회실, 직원사무실, 교수연구실에 선거때만 아니라, 간혹가다 1년에 한 두번 만이라도 찾아와 실정과 처지를 살피고 지지적인 이해와

을 한다면 이런 광경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총장실에 앉아서 공문이나 내려보내고 도장이 나 찍는 총장이 아니라, 학생회실, 직원사무실, 교수연구실에 선거때만 아니라, 간혹가다 1년에 한 두번 만이라도 찾아와 실정과 처지를 살피고 지지적인 이해와

을 한다면 이런 광경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총장실에 앉아서 공문이나 내려보내고 도장이 나 찍는 총장이 아니라, 학생회실, 직원사무실, 교수연구실에 선거때만 아니라, 간혹가다 1년에 한 두번 만이라도 찾아와 실정과 처지를 살피고 지지적인 이해와

을 한다면 이런 광경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총장실에 앉아서 공문이나 내려보내고 도장이 나 찍는 총장이 아니라, 학생회실, 직원사무실, 교수연구실에 선거때만 아니라, 간혹가다 1년에 한 두번 만이라도 찾아와 실정과 처지를 살피고 지지적인 이해와

을 한다면 이런 광경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총장실에 앉아서 공문이나 내려보내고 도장이 나 찍는 총장이 아니라, 학생회실, 직원사무실, 교수연구실에 선거때만 아니라, 간혹가다 1년에 한 두번 만이라도 찾아와 실정과 처지를 살피고 지지적인 이해와

을 한다면 이런 광경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총장실에 앉아서 공문이나 내려보내고 도장이 나 찍는 총장이 아니라, 학생회실, 직원사무실, 교수연구실에 선거때만 아니라, 간혹가다 1년에 한 두번 만이라도 찾아와 실정과 처지를 살피고 지지적인 이해와

을 한다면 이런 광경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총장실에 앉아서 공문이나 내려보내고 도장이 나 찍는 총장이 아니라, 학생회실, 직원사무실, 교수연구실에 선거때만 아니라, 간혹가다 1년에 한 두번 만이라도 찾아와 실정과 처지를 살피고 지지적인 이해와

을 한다면 이런 광경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총장실에 앉아서 공문이나 내려보내고 도장이 나 찍는 총장이 아니라, 학생회실, 직원사무실, 교수연구실에 선거때만 아니라, 간혹가다 1년에 한 두번 만이라도 찾아와 실정과 처지를 살피고 지지적인 이해와

을 한다면 이런 광경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총장실에 앉아서 공문이나 내려보내고 도장이 나 찍는 총장이 아니라, 학생회실, 직원사무실, 교수연구실에 선거때만 아니라, 간혹가다 1년에 한 두번 만이라도 찾아와 실정과 처지를 살피고 지지적인 이해와

을 한다면 이런 광경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총장실에 앉아서 공문이나 내려보내고 도장이 나 찍는 총장이 아니라, 학생회실, 직원사무실, 교수연구실에 선거때만 아니라, 간혹가다 1년에 한 두번 만이라도 찾아와 실정과 처지를 살피고 지지적인 이해와

을 한다면 이런 광경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총장실에 앉아서 공문이나 내려보내고 도장이 나 찍는 총장이 아니라, 학생회실, 직원사무실, 교수연구실에 선거때만 아니라, 간혹가다 1년에 한 두번 만이라도 찾아와 실정과 처지를 살피고 지지적인 이해와

을 한다면 이런 광경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총장실에 앉아서 공문이나 내려보내고 도장이 나 찍는 총장이 아니라, 학생회실, 직원사무실, 교수연구실에 선거때만 아니라, 간혹가다 1년에 한 두번 만이라도 찾아와 실정과 처지를 살피고 지지적인 이해와

을 한다면 이런 광경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총장실에 앉아서 공문이나 내려보내고 도장이 나 찍는 총장이 아니라, 학생회실, 직원사무실, 교수연구실에 선거때만 아니라, 간혹가다 1년에 한 두번 만이라도 찾아와 실정과 처지를 살피고 지지적인 이해와

을 한다면 이런 광경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총장실에 앉아서 공문이나 내려보내고 도장이 나 찍는 총장이 아니라, 학생회실, 직원사무실, 교수연구실에 선거때만 아니라, 간혹가다 1년에 한 두번 만이라도 찾아와 실정과 처지를 살피고 지지적인 이해와

을 한다면 이런 광경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총장실에 앉아서 공문이나 내려보내고 도장이 나 찍는 총장이 아니라, 학생회실, 직원사무실, 교수연구실에 선거때만 아니라, 간혹가다 1년에 한 두번 만이라도 찾아와 실정과 처지를 살피고 지지적인 이해와

을 한다면 이런 광경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총장실에 앉아서 공문이나 내려보내고 도장이 나 찍는 총장이 아니라, 학생회실, 직원사무실, 교수연구실에 선거때만 아니라, 간혹가다 1년에 한 두번 만이라도 찾아와 실정과 처지를 살피고 지지적인 이해와

을 한다면 이런 광경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총장실에 앉아서 공문이나 내려보내고 도장이 나 찍는 총장이 아니라, 학생회실, 직원사무실, 교수연구실에 선거때만 아니라, 간혹가다 1년에 한 두번 만이라도 찾아와 실정과 처지를 살피고 지지적인 이해와

을 한다면 이런 광경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총장실에 앉아서 공문이나 내려보내고 도장이 나 찍는 총장이 아니라, 학생회실, 직원사무실, 교수연구실에 선거때만 아니라, 간혹가다 1년에 한 두번 만이라도 찾아와 실정과 처지를 살피고 지지적인 이해와

을 한다면 이런 광경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총장실에 앉아서 공문이나 내려보내고 도장이 나 찍는 총장이 아니라, 학생회실, 직원사무실, 교수연구실에 선거때만 아니라, 간혹가다 1년에 한 두번 만이라도 찾아와 실정과 처지를 살피고 지지적인 이해와

을 한다면 이런 광경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총장실에 앉아서 공문이나 내려보내고 도장이 나 찍는 총장이 아니라, 학생회실, 직원사무실, 교수연구실에 선거때만 아니라, 간혹가다 1년에 한 두번 만이라도 찾아와 실정과 처지를 살피고 지지적인 이해와

을 한다면 이런 광경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총장실에 앉아서 공문이나 내려보내고 도장이 나 찍는 총장이 아니라, 학생회실, 직원사무실, 교수연구실에 선거때만 아니라, 간혹가다 1년에 한 두번 만이라도 찾아와 실정과 처지를 살피고 지지적인 이해와



범민족통일음악회 참석위해 민간단체최초로 북한방문 서울전통음악연주단대표 황병기교수

14명입니다. -연주할 곡목은 전정해 놓았는지.

▲전통음악의 여러분야에 걸쳐 인간의 애뜻한 정과 사랑을 담은 곡이 주종을 이루고 전통음악에 뿌리를 둔 새로운 창작곡도 일부 포함시켰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의 핵심은 한마디로 ‘평화’를 지향하는 생명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오부녀(간판분화제)

이러한가. ▲15일부터 17일까지는 공연. 연습일정협의와 음악관계기관방문을 할 예정이며 범민족음악회에 앞서 열리는 음악상음악회를 관람할 것입니다. ▲18일=음악회개막식 및 만찬(인민문화궁전) ▲19일=제1부, 2부로 나뉘어 연주 ▲20일부터 22일까지 남북합동공연 ▲23일=음악회개막식 및 만찬(청년중앙호텔)을 갖고 24일 평양을 출발, 평문점을 통해 서울로 돌아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물놀이에서 연주할 가락은 무엇인지.

▲사물놀이는 평과리·장구·징·북을 내사랑이 연주하는 리듬음악의 극치로 김석수씨는 1978년 최초의 전문적인 사물놀이 연주단으로 세계각국에서 1백회 이상의 공연을 해온 대표단체입니다. 이번 공연에서 삼도농악 즉 호남, 영남, 중부의 농악가락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통일음악회에 바라고 싶은 말은.

▲이번 음악회를 계기로 자유로운 남북왕래의 길이 트이오면 좋겠고 초창해 주신 음악상과 북쪽동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조인환기자)

인터뷰

씨와 김평숙(서도소리 이수자)씨가 부르는 평안도 민요 위음수심 가 가사에는 “농라도 수양버들 휘어 잡으니 옛일이 새로이 못 견디겠구나. 언제 언제나 고향산친을 만나 잘 살아 볼까요”라는 대목이 있으며 소프라노 윤인숙씨는 창작가곡으로 (고향의 날) (황병기 작곡), (우리는 하나) (황병기 작곡)를 노래합니다. 오정숙(관소리 명창)씨는 (육자배기)에서 ‘정’을 상징하는 전라도 민요와 (심정가)중 ‘부녀상봉’ 장면을 불러 ‘만남’을 상징합니다. -구체적인 연주 일정계획은

청각장애인과 수화통해 사랑 주고받아

-사랑의 수화교실 개설한 ‘손짓사랑회’

산인이 발달하면서 선천적 장애인보다 산업체로 인한 장애인이 증가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자기민족주의, 이기주의의 사회적 만연은 이들 장애인으로 하여금 더 커다란 고통의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지난 9월10일부터 시작된 ‘사랑의 수화교실’은 본교 손짓사랑회가 다함께 사는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한국장애인복지회 후원으로

의례강사를 초빙하여 매주 월·수·오·후5시30분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수화교실은 수강생이 34명으로 적은 편이지만, 수업 분위기는 고시를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진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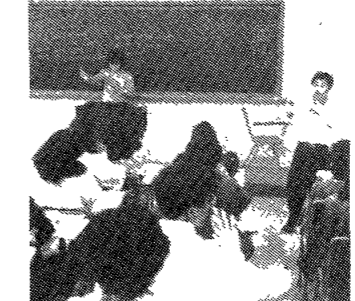
“수화는 실세하고 예민해서 동작이 조금만 틀려도 다른 뜻이 되어 버려요. 복습하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언젠가 청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친구처럼 반가웠어요. 앞으로 기조

반을 마치고 자원봉사로 청각장애인을 열심히 돕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수강생 표미영(경제3)양의 말에는 수화교실의 보람과 진지함이 엿보였다.

손짓사랑회는 회원수도 적어마다 만든지 불과 3개월도 안되는 동안 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작은 청각장애인과 대의활동을 전개하고 있지 못했다. 그렇지만 수화기생이 배출되고 정구동아리도 가입될 내년 봄쯤이면 세척처럼 활기찬 활동을 하기위해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다며 회원들은 희망을 미소를 짓는다.

“손짓사랑”이란 이름은 수화로 사랑을 나누자란 의미로 현재 본교를 비롯한 서울시내 5개 대학 청각장애인 봉사동아리의 공동이름이다.

“수화교실을 준비하며 큰 어려움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랑의 수화교실’의 한 장면 수화교실을 통해 수화하는 기술적인 면의 지도보다는 청각장애인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학생들이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번 3개월 기초반과정이 끝나면 수화교실을 비롯한 교내 홍보전을 펴

수화교실을 통해 수화하는 기술적인 면의 지도보다는 청각장애인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학생들이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번 3개월 기초반과정이 끝나면 수화교실을 비롯한 교내 홍보전을 펴

수화교실을 통해 수화하는 기술적인 면의 지도보다는 청각장애인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학생들이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번 3개월 기초반과정이 끝나면 수화교실을 비롯한 교내 홍보전을 펴

수화교실을 통해 수화하는 기술적인 면의 지도보다는 청각장애인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학생들이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번 3개월 기초반과정이 끝나면 수화교실을 비롯한 교내 홍보전을 펴

수화교실을 통해 수화하는 기술적인 면의 지도보다는 청각장애인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학생들이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번 3개월 기초반과정이 끝나면 수화교실을 비롯한 교내 홍보전을 펴

수화교실을 통해 수화하는 기술적인 면의 지도보다는 청각장애인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학생들이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번 3개월 기초반과정이 끝나면 수화교실을 비롯한 교내 홍보전을 펴

수화교실을 통해 수화하는 기술적인 면의 지도보다는 청각장애인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학생들이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번 3개월 기초반과정이 끝나면 수화교실을 비롯한 교내 홍보전을 펴

수화교실을 통해 수화하는 기술적인 면의 지도보다는 청각장애인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학생들이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번 3개월 기초반과정이 끝나면 수화교실을 비롯한 교내 홍보전을 펴

수화교실을 통해 수화하는 기술적인 면의 지도보다는 청각장애인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학생들이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번 3개월 기초반과정이 끝나면 수화교실을 비롯한 교내 홍보전을 펴

수화교실을 통해 수화하는 기술적인 면의 지도보다는 청각장애인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학생들이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번 3개월 기초반과정이 끝나면 수화교실을 비롯한 교내 홍보전을 펴

수화교실을 통해 수화하는 기술적인 면의 지도보다는 청각장애인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학생들이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번 3개월 기초반과정이 끝나면 수화교실을 비롯한 교내 홍보전을 펴

수화교실을 통해 수화하는 기술적인 면의 지도보다는 청각장애인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학생들이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번 3개월 기초반과정이 끝나면 수화교실을 비롯한 교내 홍보전을 펴

수화교실을 통해 수화하는 기술적인 면의 지도보다는 청각장애인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학생들이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번 3개월 기초반과정이 끝나면 수화교실을 비롯한 교내 홍보전을 펴

수화교실을 통해 수화하는 기술적인 면의 지도보다는 청각장애인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학생들이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번 3개월 기초반과정이 끝나면 수화교실을 비롯한 교내 홍보전을 펴

수화교실을 통해 수화하는 기술적인 면의 지도보다는 청각장애인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학생들이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번 3개월 기초반과정이 끝나면 수화교실을 비롯한 교내 홍보전을 펴

수화교실을 통해 수화하는 기술적인 면의 지도보다는 청각장애인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학생들이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번 3개월 기초반과정이 끝나면 수화교실을 비롯한 교내 홍보전을 펴

수화교실을 통해 수화하는 기술적인 면의 지도보다는 청각장애인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학생들이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번 3개월 기초반과정이 끝나면 수화교실을 비롯한 교내 홍보전을 펴

수화교실을 통해 수화하는 기술적인 면의 지도보다는 청각장애인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학생들이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번 3개월 기초반과정이 끝나면 수화교실을 비롯한 교내 홍보전을 펴

수화교실을 통해 수화하는 기술적인 면의 지도보다는 청각장애인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학생들이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번 3개월 기초반과정이 끝나면 수화교실을 비롯한 교내 홍보전을 펴

수화교실을 통해 수화하는 기술적인 면의 지도보다는 청각장애인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학생들이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번 3개월 기초반과정이 끝나면 수화교실을 비롯한 교내 홍보전을 펴

수화교실을 통해 수화하는 기술적인 면의 지도보다는 청각장애인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학생들이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번 3개월 기초반과정이 끝나면 수화교실을 비롯한 교내 홍보전을 펴

수화교실을 통해 수화하는 기술적인 면의 지도보다는 청각장애인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학생들이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번 3개월 기초반과정이 끝나면 수화교실을 비롯한 교내 홍보전을 펴

수화교실을 통해 수화하는 기술적인 면의 지도보다는 청각장애인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학생들이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번 3개월 기초반과정이 끝나면 수화교실을 비롯한 교내 홍보전을 펴

수화교실을 통해 수화하는 기술적인 면의 지도보다는 청각장애인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학생들이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번 3개월 기초반과정이 끝나면 수화교실을 비롯한 교내 홍보전을 펴

수화교실을 통해 수화하는 기술적인 면의 지도보다는 청각장애인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학생들이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번 3개월 기초반과정이 끝나면 수화교실을 비롯한 교내 홍보전을 펴

수화교실을 통해 수화하는 기술적인 면의 지도보다는 청각장애인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학생들이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번 3개월 기초반과정이 끝나면 수화교실을 비롯한 교내 홍보전을 펴

수화교실을 통해 수화하는 기술적인 면의 지도보다는 청각장애인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학생들이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번 3개월 기초반과정이 끝나면 수화교실을 비롯한 교내 홍보전을 펴

수화교실을 통해 수화하는 기술적인 면의 지도보다는 청각장애인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학생들이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번 3개월 기초반과정이 끝나면 수화교실을 비롯한 교내 홍보전을 펴

우리의 문화, 우리의 긍지 ③ 거북놀이

경기도 이천, 충북 음성 등 경기, 충청지방에서 한가위날 장님들이 펼치는 민속놀이. 수숫대로 거북모양을 만들어 사람이 들어가서 농악기에 맞춰 마음의 짐을 풀면서 집집마다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동네의 길귀질신을 쫓는 의미가 있다.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萬石거북아 놀아라!

한가위 보름달이 휘영청 밝아오면 거북을 앞세우고 풍물을 울려라. 흥겨운 농악가락 하늘 높이 올라가니 평과리 세면치고 장고, 북, 징, 소고도 세면 쳐서 김주인 불리놓고 무병장수 기원하네.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만석 거북아 놀아라 천석 거북아 놀아라 이 집에 사는 사람 무병장수 하시이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 무병장수 하시이다.’

우리의 민속놀이는 민중 공동체적의식 소산이었습니. 민중사를 엮어온 대다수 민중의 뜻과 삶의 결집이 풍년을 기원하고 대동단결을 염원하는 놀이의식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만의 독창적인 놀이문화를 전승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승이란 단순히 어제의 것을 오늘에 되살려 재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창조적인 의의발견을 드러내어 새로운 역사발전에 활력소가 되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일을 이끌어갈 오늘의 젊은이들이 앞장서 우리의 놀이문화를 전승해갈 때 우리의 고유문화가 더욱 화려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은 우리 고유의 문화에 긍지를 느낍니다.

대한항공

대한항공

대한항공

대한항공

대한항공

대한항공

대한항공

대한항공

대한항공

대한항공

대한항공